

도내 지자체 위원회 여성참여율 저조

평균 24.2%로 전국 평균 밀돌아... 여성친화도시인 김제·익산·남원 순으로 높고 무주 최저

도내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여성참여율이 전국 평균을 밑돌면서 양성평등의 구호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전북도에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15년 전북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여성참여율'이 지난해 연말기준 24.2%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23.3%보다 0.9%포인트 상승했지만 전국 평균 30.1%보다 5.9%포인트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국정과제인 '실질적 양성평등 확산'을 위해 내년까지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4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국적으로는 2014년에 비해 1.6%포인트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북지역의 속도는 더디기만한 것이다.

그나마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된 도내 3개 시의 성적은 상위권에 속하면서 체면은 유지했다.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해 설치·운영 중인 도내 지자체 위원회의 여성 참여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4개 지자체 총 942개 위원회 위원 9,043명(남성 6,851명, 여성 2,192명) 가운데 여성참여율은 24.2%를 차지하

고 있다.

14개 시군 중 여성참여율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2011년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된 김제시(32.3%)로 72개 위원회 총 582명의 전체위원 중 여성위원은 188명이 활동 중이다.

이어 2009년 선정된 익산시(32.2%)로 80개 위원회 총 783명의 전체위원 가운데 여성위원은 252명이 구성됐다.

이어 남원시(2013년 여성친화도시 선정) 29.0%, 정읍시 27.8%, 전주시 26.4%의 순이다.

도내에서 여성위원의 참여율이 가장

저조한 지자체는 무주군으로 13.6%의 비율을 나타냈다.

지난 2014년 상·하위권 지자체 현황을 발표한 적은 있지만 전체 지자체 14개 시군 위원회 여성참여 현황이 발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도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이 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양성평등한 시각의 반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민형 기자

중국 한미원·독일 VDM - 전북도 투자협약

김제자유무역 지역에 20억씩 투자 공장 설립

1해의 강소기업들의 전북투자가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2일 전북도에 따르면 중국 (주)한미원과 독일 VDM(주)이 전북도와 김제자유무역지역에 생산공장 등을 건설하는 투자협약(MOU)을 맺었다.

이번에 협약을 체결한 (주)한미원은 중국 제조기업으로서 최초로 전북에 등지를 뜨는 것으로 김제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에 약 20억원을 투자해 6,000㎡(약2,000평) 규모의 생산공장을 세운다는 계획이다. 산동성 위해시에 위치한 (주)한미원은 2009년에 설립돼 약 7년간 과자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지난해 약 3,600억원의 매출을 냈고 종업원은 100여명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투자로 (주)한미원은 약 50명을 고용해 연간 300톤의 과자·사탕 등을 생산할 계획이다. 이렇게 생산된 생산품은 (주)한미원에서 전량 수입해서 중국 내 판매하고 있는 해태, 롯데, 오리온 등의 제품과 함께 중국으로 팔리게 될 예정이다. 투자시기는 올해 상반기 안에 이뤄질 예정으로 일부 금액은 이미 투자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주)한미원은 이번 1차 투자가 성공을 거둬 경우 내년에는 대규모의 2차 투자(약 3,000여명 규모)가 예정돼 있어 중국의 전북투자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독일의 VDM(주)은 1990년 한국내 법인이 설립돼 현재 VDM 메탈즈 코리아는 이름으로 독일 본사와 미국 공장에서 생산된 고성능 비철금속 소재인 니켈합금원소재를 국내기업에 판매하고 있다. 이번 VDM(주)의 투자는 VDM 메탈즈 코리아의 한국 및



중국 (주)한미원과 독일 VDM(주)이 전북도와 김제자유무역지역에 생산공장 등을 건설하는 투자협약(MOU)을 맺었다.

아시아지역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그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및 시장 확대를 이루고, 향후 전북김제공장을 아시아 시장 거점지역으로 키워 나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올 상반기부터 투자가 시작된 VDM(주)는 약 20억 정도를 투자해 김제자유무역 표준공장 1층 약 500여평에 10명 정도를 고용할 예정이다.

VDM(주)는 1930년 독일 뒤셀도르프 인근에 회사를 설립해 미국 등에 7개의 해외공장이 있고 전세계 13개국에 지사를 운영 중이다. 또한 종업원 수는 2,000여명이고 연간 매출은 약 10억유로(1조 3천억원)인 독일 강소기업이다.

전해성 도 투자유치과장은 "이번 중국 한미원과 독일 VDM 메탈즈 코리

아의 투자는 김제자유무역지역은 물론 인근 새만금지역 내 한중산업협력단지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면서 "전라북도, 김제시, 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두 기업이 빠른 시일 내에 김제자유무역지역에 성공적으로 안착해서 해외투자의 성공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다.

/정영수 기자

전북도, 물놀이 사고 예방 총력 추진한다.

2일 도에 따르면 최근 5년(2011년~2015년)간 물놀이 사망사고는 총

13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1년 3건·2012년 3건·2013년 2건·2014년 3건·2015년 2건 등이다.

이처럼 매년 물놀이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도는 오는 8월말까지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안전관리에 돌입한다.

이에 도는 111곳을 물놀이 관리지역으로 지정했고, 52곳을 물놀이 위험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들 지역에는 구명환과 구명조끼 등 안전시설과 안전관리요원을 확보했다.

또 비상근무반을 편성해 만일의 사고를 대비하고, 지속적으로 현장점검을 벌여 안전상태 등을 확인하기로 했다.

/정영수 기자

“옥시 뒤에 숨었던 기업 처벌을”

환경연합, 롯데마트·홈플러스 책임자 수사 요구

환경운동연합(환경연합)은 2일 롯데마트·홈플러스의 가습기살균제 생산·판매 책임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옥시레킷벤 키저(옥시) 뒤에 숨어 있던 기업들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와 처벌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병용(65) 롯데마트 전 대표는 2006년 구두약 제조업체인 용마산업에 롯데마트의 가습기 살균제 PB상품인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를 발주했던 책임자”라며 “2011년 전후(2010~2014년)에 대표이사를 역임하면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인원을 감추거나 관련 수사를 방해해 온 장본인”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옥시가 중소기업 수준의 ‘외국계 기업 한국지사’였

다면 롯데마트는 국내 상황을 꿰뚫고 있고 한국인의 정서를 잘 알고 있는 재벌기업이라는 측면에서 죄는 더욱 무겁다”고 지적했다.

또 “홈플러스 역시 자체 PB 상품인 ‘홈플러스가습기청정제’를 2004년에 용마산업에서 생산·판매했으며 사망자 15명을 포함해 55명의 피해를 발생시켰다”며 “지금도 옥시 제품을 매장에서 판매하고 옥시 판매 현황 자료조차 공개를 거부하는 등 오만한 행태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언론에 보도된 이철우(73) 전 롯데마트 대표와 이승한(70) 전 홈플러스 대표에 대한 구속은 물론이고 롯데마트를 관할하는 롯데쇼핑의 대표였던 신동빈 회장 등에게도 분명하게 철저하게 수사하고 죄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영수 기자

정부, 5·7급 민간 경력자 258명 채용... 이달 접수

인사혁신처는 올해 5급, 7급 국가공무원에 모두 258명의 민간 경력자를 채용할 방침을 확정하고 이달 원서접수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신발 예정 인원은 5급 공무원 38개 기관 153명, 7급 공무원 30개 기관 105명이다. 특히 올해 ‘글로벌 인재 직무군(5급)’을 신설해 국제통상 민간전문가의 공직 응시 기회를 늘렸다.

5급 민간경력채용 선발 인원을 기관별로 보면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이 각 10명을 선발한다. 그 외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각 9명, 보건복지부와 환경부 각 8명,

법무부 각 5명 등이다.

7급 민간경력채용 선발 인원을 기관별로 보면 식품의약품안전처 16명, 농촌진흥청 14명, 국민안전처 10명, 미래창조과학부 7명, 교육부 6명 등이다.

원서는 오는 20~27일 접수할 수 있으며, 필기시험은 오는 7월30일 치러질 예정이다. 이후 서류전형과 면접 시험을 거쳐 오는 12월께 최종합격자가 정해질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오는 3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용주 기자

정부, 대북제재 결의 2270호 이행보고서 안보리 제출

정부가 지난 1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제재 결의 2270호 이행보고서를 제출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행보고서) 정부가 취하고 있는 대북(對北) 금수조치, 해운·운송 통제, 금융 및 경제 제재, 사치품 통제 등 대북제재 조치 현황을 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조하에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철저한 이행을 위한 노력을 지속 경주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는 모든 회원국이 효과적인 결의 이행을 담보하

기 위한 자국 내 법적, 행정적 조치를 채택 후 90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모나코가 지난달 말에 회원국 중 처음으로 이행보고서를 제출했으며, 지난 1일을 기준으로 5개 정도 국가가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 대변인은 유엔 안보리가 지난 1일(현지시간) 북한의 실패한 미사일 발사 시험을 규탄하기 위한 언론선언문을 채택한 것과 관련 “안보리가 북한의 거듭된 도발에 대한 회원국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국제사회가 결의 2270호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재차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박용주 기자

주간(주말), 야간면접 특강

스피치·시낭송·면접·웃음치료·매직(마술)

◎ CEO, 2%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귀하에게 날개를 단다
◎ 감성과 파워 스피치로 언력(言力)의 시대에 성공의 날개를 단다
◎ 소통과 감성의 시대 필수과목을 이수해야 날개를 단다

〈강의특징〉

- ① 40년 지도경험과 노하우로 알차고 재미있는 강의
- ② 저명한 교육비로 주1회 교육
- ③ 각종대회 출전지도 (대통령상 3회 국무총리상 2회 배출)
- ④ 각 분야 전문 강사가 지도함
- ⑤ 차명운행(유치부,초등부)

〈김양욱 전담교수 소개〉

- 전주교육대학교 겸임교수
- 전북대 교양학부 (토론과면접) 전담교수
- 면접지도 전북1호 강사
- 한국음변인협회 전북회장
- 한국스피치&리더십컨설팅 대표
- 스피치&리더십 경력 40년 강사 및 스피치 칼럼리스트
- 저서 : “365인스피치커뮤니케이션 ‘나를 세운 말말말’ ‘스피치노하우’ 등

※부별: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일반부, 면접지도, 개인지도, 주말반

(사)한국음변인협회, (사)한국음변단체총연합회 부설

한국 스피치 & 리더쉽 컨설팅

한국 스피치 & 면접 아카데미

위치: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번지(시청옆 대우빌딩 건너편 5층)
상담전화: 285-6676, 231-6669, 010-7304-5665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